

Part 2 — 시장을 읽는 눈

회차 도입 — 40년 저물가 시대는 정말 끝났는가

· 정리 2026-05-14

라떼가 또 올랐습니다. 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까요?

Part 2-1강이 돈의 가격 = 금리의 신호등 룰북을 정리했다면, 2강은 그 명목 금리를 분해한 **명목 금리 = 실질 금리 + 기대 인플레이션** 중 **기대 인플레이션** 축의 본격 분석입니다.

회차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1982년부터 2021년까지 40년 이어진 저물가 시대는 끝났습니다.** 일시적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 시대를 만든 3 축 — 세계화 + 인구통계학적 황금기 + 아마존 효과(IT 혁명) — 이 모두 동시에 무너졌고, 그 자리에 탈세계화·자원 무기화·광산 노후화·세일 한계 / 인구 절벽·베이비부머 은퇴 / AI 인프라 천문학적 에너지 소비라는 구조적 인플레 압력이 들어섰습니다. 18장으로 추립니다.

40년

1982~2021 저물가 시대 종언 — 그 시대를 만든 3 축(세계화·인구·IT)이 모두 동시에 무너진 구조적 변화

2026년 라떼 6,500원, 그 이유는 단순한 사이클이 아닙니다. 강의는 구조적 진단으로 답합니다.

1982~2021 40년 저물가 시대

혹시 이런 의문 드신 적 없으신가요? '왜 옛날에는 물가가 잘 잡혔지?' 회차의 첫 답은 역사 데이터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951년 9.4%, 1970년 6.4%로 시작했지만 1974년 12.2%, 1980년 14.6%까지 치솟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2년부터 안정 시기로 진입해 약 40년간 선진국 중심으로 저물가가 지속됐습니다.

이 40년이 그냥 우연히 잡힌 게 아닙니다. 회차는 그 시대를 만든 **3 축의 마법**을 짚습니다. 그 3 축이 모두 동시에 무너졌다는 게 본 회차의 핵심 메시지.

■ 미국 CPI 역사 — 1980년 14.6% 정점 → 1982년부터 안정

연도	CPI
1951년	9.4%
1970년	6.4%
1974년	12.2%
1980년	14.6% (정점)
2020년	9% (코로나)

저물가의 3 축 — 그리고 동시 종언

회차가 짙는 핵심 — 지난 40년 저물가 시대를 만든 건 3 축의 마법입니다. 이 3 축이 모두 **동시에**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만 무너졌으면 일시적 사이클이지만 셋 모두 동시에 무너진 건 구조적 변화입니다. 다음 카드들에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 저물가 3 축 (마법) — 그리고 종언

첫 축 — 세계화 단일 패권 시대

미·소 패권 전쟁 시기에는 저개발 국가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 투자가 어려웠고,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 전후 미국 단일 패권 체제가 시작되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 중국·베트남 등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이 가능해졌고, 글로벌 분업 체제가 본격 작동했습니다.

원자재도 안정됐습니다. 소련 붕괴로 동유럽의 석유·가스·니켈·알루미늄 등 주요 자원이 쏟아졌고, 미국 단일 패권국의 '재패' 신뢰로 아프리카·남미 광산이 새로 개발됐습니다. 자본주의 흐름이 안정되며 글로벌 경쟁력 풍부한 인플레이션 안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화룡점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 **세일 오일**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피크 오일 우려가 깊었지만, 2010년대 미국이 세일 오일을 본격 개발하면서 석유 가격이 다시 안정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세계화의 안정성에 마지막 한 조각이 더해진 순간이며, 다음 카드에서 세일이 왜 화룡점정이었는지 물리법칙으로 풀이합니다.

세일 오일이 화룡점정이었던 이유 — 물리법칙

원자재 채굴과 정제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캐기 쉬운 원자재가 사라질수록 투입되는 에너지가 급증합니다.

1920년에는 1배럴 태우면 100배럴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1배럴 태워서 20배럴(일부는 10배럴)만 생산됩니다. 효율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세일이 등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했지만, 이는 **물리법칙 문제**라 기술 혁신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세일 한계가 다가오면 다시 원자재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 세일 효율 변화 — 1배럴 투입의 결과

구리 가격 폭등 — 문명의 핵심 지표

구리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전기차·AI 데이터센터·신재생 에너지에 모두 들어가는 **문명의 핵심 자원**입니다.

회차 시점 이후 흐름을 보면 압력은 더 커집니다 — S&P Global이 2026-01-08 발간한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구리 시장이 'substantial shortfall'에 진입했다고 진단했고, **단일 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약 5만 톤의 구리가 필요**(일반 데이터센터의 3~4배)합니다. 회차의 구리 메시지가 가속 중. †1

■ 구리 가격 (파운드) — 24년 3.7배



원자재 비싸질 4 구조적 원인 ★

회차가 짙는 4 구조적 원인입니다. 4 원인이 모두 구조적이라 단기 해결이 어렵습니다.

특히 광산 노후화가 결정적 — 지하 10m에 있던 광산이 100m로 깊어지고, 1톤당 10g이었던 광석이 1g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신규 광산 개발은 연이은 실패로 세계화 황금기에 급증했던 광산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원자재 4 구조적 원인

원인	내용
1. 탈세계화	최저가 X, 우방에서만 사야 함
2. 세일 한계	피크 오일 다시 도래 (1배럴 100→20배럴)
3. 광산 노후화	10m → 100m / 10g → 1g 이하
4. 자원 무기화	중국 갈륨·게르마늄·희토류 / 러시아 천연 가스

자원 무기화 + 일시 휴전

자원의 무기화는 회차가 짙은 결정적 변수입니다.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희토류·은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도 천연가스로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회차 시점 이후 흐름 — 중국이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export controls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트럼프-시 데탕트 합의). 다만 **라이선스 요구는 유지**되며 글로벌 갈륨 99%가 여전히 중국 의존. 미국 텍사스 첫 비중국 갈륨 시설(MTM Critical Metals)이 2026 초 가동 시작. 한 사이클 반복되는 자원 무기화의 패러다임은 회차 메시지 그대로 유효. †2

■ 중국이 통제된 자원 5종

자원	용도
갈륨/게르마늄	차세대 반도체 필수 소재
흑연	배터리 음극재 핵심
희토류	자석 (모터)
은	첨단 반도체·로봇 핵심

로봇이 답 안 되는 이유 — 자원-로봇 연결

AI와 로봇으로 인플레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회차는 결정적 반박을 합니다 — **중국이 통제된 자원이 모두 로봇의 핵심 부위입니다.**

갈륨·게르마늄은 차세대 반도체 = **로봇의 두뇌**.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 = **로봇의 체력**. 희토류는 자석 = **로봇의 근육·모터**. 은은 첨단 반도체·로봇 핵심 소재 = **로봇의 신경망·회로**.

결국 로봇으로 인플레를 잡겠다는 시나리오는 자원 무기화 메커니즘에 직접 막힙니다.

중국 통제 자원 = 로봇 부위 매핑

자원	로봇 부위
갈륨/게르마늄	 두뇌 (반도체)
흑연	 체력 (배터리)
희토류	 근육 (모터)
은	 신경망 (회로)

둘째 축 — 인구 황금기 3 마법

지난 40년 저물가의 둘째 축은 인구통계학적 황금기입니다. 회차는 **인구가 물가를 찍어 누른 3가지 마법**을 정리합니다.

이 3 마법이 모두 역전되는 흐름이 본 회차의 핵심. 인구 피라미드는 1990년 안정적 모양에서 2030년 역삼각형으로 바뀝니다.

■ 인구가 물가를 찍어 누른 3 마법

1990 vs 2030 인구 피라미드 역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1990년 안정적 피라미드가 2030년에는 역삼각형으로 바뀝니다. 이 단순한 도식의 의미는 강력합니다.

노동 공급 부족 → 임금 상승 → 물가 상승의 인구 메커니즘이 본격 작동합니다. 베이비부머·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에서 같은 흐름.

■ 인구 피라미드 변화 — 안정 → 역삼각형

베이비부머 저축 → 지출 전환

결정적 변수는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입니다. **지난 40년간 저축을 담당해왔던 세대가** 이제 대부분 은퇴하면서 저축을 인출해 생활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결국 저축 감소 → 저금리 시대와 작별. 이는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물가 자극으로 이어지는 인구 메커니즘입니다. 30~50대가 가장 저축률이 높은 세대인데, 그 인구 비중이 그대로 줄어드는 흐름이 30년 가까이 이어진 저금리 시대의 진짜 베이스가 무너지는 신호.

한국에서도 부모님 세대가 정기예금을 깨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게 글로벌 매크로 차원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미국·유럽·일본의 베이비부머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은퇴하면서 글로벌 저축 풀(pool)이 줄어드는 결정적 변곡점입니다.

AI·로봇으로 대체하면? — 2 한계

AI와 로봇틱스가 노동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차는 결정적 한계 2가지를 짚습니다.

특히 두 번째 — 부양비 ↑ + 고령층 ↑ = 만성적 세수 부족 → 재정적자 ↑ → 금리 ↑ → 비용 ↑ 악순환. 원자재 문제(앞서 본 자원 무기화)와 결합되면 더 큰 문제.

AI·로봇의 2 한계

한계	설명
감정 X	환자 감정 못 돌봄 / 요양보호사 수요 ↑ / 로봇 대체 제조업 8%
세금 X	세수 부족 → 재정적자 → 금리 ↑ → 비용 ↑

셋째 축 — 아마존 효과 → 물리법칙 발목

셋째 축은 IT 혁명입니다. 아마존 효과로 최저가 검색 공포 + 중간 상인 실종이 물가를 낮쳤습니다 — 5단계(공장→총판→도매→소매→소비자)가 3단계(공장→물류센터→소비자)로 축소되며 가격 하락 동력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동네마트가 비싸게 팔 수도 있었지만, 아마존(IT) 효과로 최저가 검색이 가능해지자 경쟁적으로 판매가를 낮추는 흐름이 본격화됐습니다. 쿠팡·네이버 같은 한국 플랫폼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

그러나 IT도 한계가 있습니다 — **물리법칙이 발목을** 잡습니다. 주문 시스템은 빛의 속도지만 배송은 여전히 트럭과 사람. IT가 아무리 발전해도 휘발유나 충전 비용이 필요하고, 에너지 가격은 물리 법칙이 작동합니다. 빠른 차는 있지만 도로가 없는 상태가 IT 효율화의 본질적 한계.

AI와 로봇틱스가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플레 자극 위험. 다음 카드에서 그 메커니즘을 3 장벽으로 정리합니다.

AI 물가 낮추기 3 장벽

AI가 궁극적으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3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지역 전기요금이 30% 상승한 사례**.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는 지역 사회 전기 인프라를 흔들 정도입니다.

■ AI 물가 낮추기 3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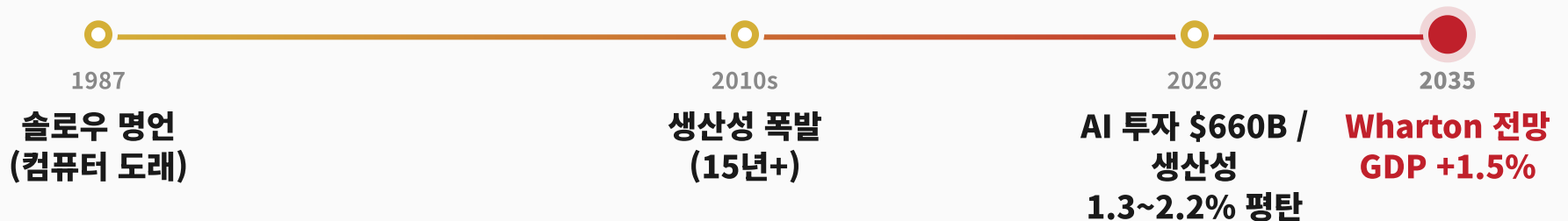
솔로우 패러독스 + AI 시차 검증

198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우는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생산성 통계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1980년대 말 컴퓨터 도래 → 생산성 실제 폭발은 **2010년대 = 15년 이상** 걸렸습니다. AI도 같은 패턴 — Wharton 모델 2025: **2035년 GDP +1.5%, 2055년 +3%**.

회차 시점 이후 솔로우 패러독스가 정확히 재현 중. AI 투자 2019 \$40B → 2025 \$410B → **2026 \$660B** 폭증에도 미국 생산성 여전히 **1.3~2.2% 평탄**. CEO 설문 68%는 AI 효과 0~5%로 평가. 일반목적 기술(전기 ~40년 / 컴퓨터 25~35년)의 시차 패턴 그대로. + 3

■ 솔로우 시차 패턴 — 컴퓨터·AI 모두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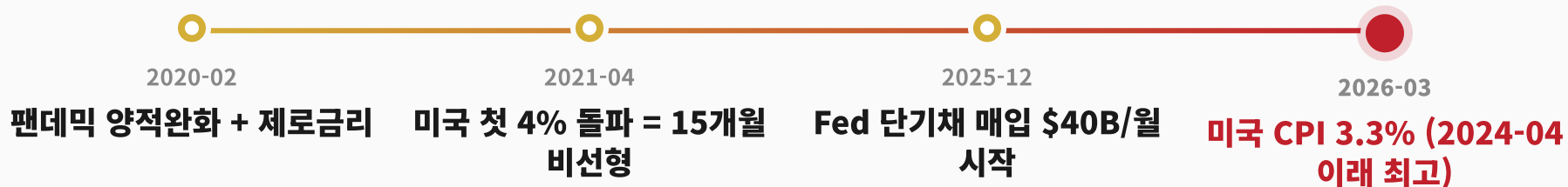
2026 비선형 시차 + 미국 CPI 3.3%

그렇다면 향후 어떤 상황이 올까요? 회차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0년대 말까지 AI는 물가 낮추기 무리 + 40년 저물가 시대 막을 내림 + 1970년대처럼 연준이 돈 뿌리면 물가 오르고 긴축해야만 잡힘.

회차 시점 이후 데이터로 검증 — 미국 CPI 2026년 3월 **3.3%** (2024-04 이래 최고). Fed는 2026 4월 3.5~3.75% 보유. 2025-12부터 단기채 매입 월 \$40B(reserve management 명목, 실질 유사 QE). **양적완화 → 4% 돌파 15개월 비선형 검증**(2020-02 → 2021-04)이 회차 시점 직후에도 작동 중. †4

■ 비선형 시차 검증 + 회차 시점 흐름



Part 2-2강 마무리 — 인플레이 시차 룰북

본 회차의 핵심 메시지는 두 줄로 압축됩니다.

1 40년 저물가 시대(1982~2021)는 끝났다. 일시적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변화 — 세계화·인구·아마존 효과 3축이 모두 동시에 무너짐. 원자재 4 원인(탈세계화·세일 한계·광산 노후화·자원 무기화) 모두 구조적이라 단기 해결 X.

2 2020년대 말까지 AI는 답이 아니다. 슬로우 시차 그대로(컴퓨터 도래 → 생산성 폭발 15년+). Wharton 2035년 GDP +1.5%.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AI 인프라 에너지 소비로 인플레이 자극.

결과 — 1970년대처럼 연준이 돈 뿌리면 물가가 오르고, 긴축해야만 잡히는 시대. 양적완화 → 4% 돌파까지 15개월 비선형 시차(2020-02 → 2021-04)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 한국 6월 지방선거의 단기 부양 정책이 위험 요소.

강의는 직접 매수·매도 권유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매월 들여다볼 인플레이 시차 + 비선형 룰북을 제시할 뿐 — 깨어 있으면 비선형 상승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마인드셋이 결론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방식은 항상 비선형 — 깨어 있으면 미리 인지할 수 있다.

다음 강 — Part 2-3

달러 가치의 미래

본 회차 § '1970년대처럼 돈 뿌리면 오름' 흐름의 직접 후속. 인플레이가 지속되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 매주 목요일 게시.

박종훈의 지식한방 Part 2-2강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 핵심 논지와 외부 자료 보강을 통해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요약입니다.